이 단체의 기원은 약 3천년전 이스라엘에서 시작합니다.그들은 본디 나일강 유역에서 신을 모시고 성전을 건축하며 마물들을 다루거나 봉인하던 사제들이었습니다.그들은 나일강에서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와 성전을 파괴하며 전쟁을 벌이자 이에 노하여 사제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마물들의 봉인을 풀어 전쟁을 벌이던 이들을 멸망시키고 이집트에 최초의 통일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왕으로 사제들의 대표였던 솔로몬이 통제하던 마물을 내세웁니다.[[1]](#footnote-0),스콜피온 킹의 치세기간 이집트의 잔존세력들은 완전히 멸망했으며 그 뒤 스콜피온 킹을 소환하고 다뤘던 현명한 사제 솔로몬은 스콜피온 킹을 다시 석판에 봉인시키고 파라오로 임명되었습니다.그는 스콜피온 킹을 봉인하고 마물들을 다루는 일정한 규칙과 차기 파라오들의 임명방식을 규정짓고 퇴임합니다.그 이후에는 솔로몬의 뜻에 따라 회의를 통해 파라오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떄 파라오를 임명하기 위한 회의를 현대에 와서는 듀얼이라고 부릅니다.듀얼을 통해 승리한 사제는 파라오가 되었으며 패배한 사제는 제물로 바쳐지거나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이렇게 떠난 사제들은 신들이 살던 나라이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이스라엘에 도착한 사제들은 신을 모시면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그러나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이집트 통일전쟁때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들은 신들을 모독하는 머저리들을 퍼지하고 자신들을 추방시킨 파라오들에게 죽창을 꽂는데 동의하며 기관(Mossad)을 창설합니다.이것이 기관의 시초입니다.기관은 그 뒤 2대 파라오이자 심심했던 현명한 사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스콜피온 킹에 버금가는 마물인 골리앗,후에 엑조디아라 불리는 마물을 소환하기 위에 악마들과 거래를 하러 지옥으로 떠났으며,그의 제자인 다윗은 예언자로 위장하고 사뮤엘이라는 가명으로 12지파의 수장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훌륭한 말빨과 신묘한 지략으로 골리앗과 덤으로 지옥에서 강하기로 유명한 72악마들도 함께 데려 왔으며,다윗은 나약한 베냐민의 사울이라는 훌륭한 언변가를 포섭하는데 성공합니다.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솔로몬이 사역하는 72 악마군단과 골리앗은 11지파들을 박살냈으며 다윗과 사울은 그들을 베냐민의 편으로 끌어들이며 이스라엘을 통합시켜갔습니다.

그 결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됩니다.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되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파라오를 박살내라는 하느님의 예언을 전달합니다.그러나 국력을 보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무엘은 이에 소극적이었고 이에 기관은 솔로몬의 72악마들을 통해 그를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기관 직할 암살기관이자 광신도 집단인 하사신을 보내어 죽입니다.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의 추천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국왕이 됩니다.다윗은 국왕으로 취임하고 이집트에서 스승이 그러했듯이 차기 이스라엘 국왕을 선출하기 위한 규칙들을 제정했습니다.이때 그는 과거 이집트에서 일어난 참사를 막기 위해 듀얼을 금지시키고,기관의 신탁에 따라 차기 국왕을 임명하도록 법을 제정합니다.그 뒤는 평화롭게 통치하다가 악마를 지상에 불러들인 것에 노한 신들이 지진을 일으키면서 골리앗을 봉인해놓은 석판이 5등분이 되었고 결국 풀려납니다.이에 솔로몬은 72악마들로 골리앗을 붙잡는 한편 5갈죽을 시켜 골리앗을 봉인합니다.그 뒤 솔로몬은 뒤쳐리를 하겠다며 다윗에게 왕자리를 줄 것을 요청하고는 왕자리를 멋대로 받아서는 상황정리를 하고는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이집트를 박살낼 각을 보기위해 이집트와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펼칩니다.[[2]](#footnote-1)그리고 골리앗의 소환을 준비하며,군비를 증강합니다.그리고는 기관의 회의결과에 따라 이집트를 침략하나 신들은 솔로몬이 또 골리앗과 72악마를 소환한 것에 매우 분노하여 여러 재앙들을 불러왔고 결국 이집트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기관은 건재했습니다.솔로몬과 다윗은 악마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얻은 부산물인 불멸자덕에 죽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그둘을 중심으로 기관은 유지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기관은 지중해를 떠돌아다닙니다.그들은 지중해를 떠돌아 다니며 무역도 하고,신들도 불러내어 전쟁도 벌이고,늑대에게서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실험도 하고,초인도 만들고,신흥종교도 만들고,북방의 야만족들과 같이 이집트도 털어먹는등 여러 깽판을 벌이며 지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00년정도의 공백이 생겼으며,실험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왕국을 세웠고,2년만에 일라리아에서 북인도까지 지배하는 제국이 생겼으며,지중해 곳곳에 도시가 세워지고,다신교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그렇게 기관이 하고 싶은거 다하며 지낼무렵

실험체의 자식들이 세운 나라는 전 지중해를 다 지배하게되면서 꺵판을 못치게 됩니다.그러자 기관은 종특을 못버리고 다시 한번 깽판치기 위해 솔로몬의 자식이자 다윗의 제자인 예수에게 솔로몬의 악마 13위를 쥐어주고 신흥종교를 퍼뜨리라는 지령을 내립니다.이에 예수는 충실히 13악마들을 활용하여 여러 웅담을 만들고 빈자들에게 아편과 지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쾌락을 전파하며 전 로마를 장악할 준비를 합니다.그러나 13악마들로는 신앙심이 모이지 않았습니다.이에 기관은 예수의 클론을 준비하고 사제들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박해해 달라는 청원을 냅니다.그 결과 예수(의 클론)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고 그뒤 진짜 예수가 나타 3일만에 부활했다며 기독교를 퍼트리라는 칙령을 내리고 지옥으로 떠났습니다.

그 뒤 2,3백년간 기독교도들은 기관의 지령에 따라 로마제국 전체에서 널리 활동했으며,지도층 사이에서는 최고의 쾌락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기관이 퍼뜨린 소문에 혹해 기독교로 개종하는등 사회 전체에 기독교가 널리 퍼졌습니다.이를 막기위해 로마의 황제들은 고군분투하며 사제들을 때려잡았으나 소용이 없었고 그 결과 기관과 로마황제인 콘스탄티누스 사이에서 밀라노 협정이 체결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결국 기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밀라노 협정이 체결되고 로마의 상류층들은 불멸자와 쾌락을 얻었고.빈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로마제국이 붕괴하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불멸자들은 자신의 불멸을 유지하기 위해 부를 계속 착취해 기관에 바쳤으며,빈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났으나 불멸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기는 똑같았기 때문에 불멸자들에게 죽창을 꽂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북방과 동방의 사제들과 접촉합니다.북방과 동방의 사제들은 마침 로마제국의 확장에 이권을 침해받은 상황이었기에 협조에 동의합니다

그 결과 북방에서는 신들이 라그나로크를 선포하고 로마를 향한 대규모 침략을 시작헀으며 동쪽에서는 신내림을 받은 아틸라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이에 기관은 고대마물이었던 스콜피온 킹과 골리앗의 봉인을 해제하고 59위의 악마들을 통솔하여 침공에 대응하려 했으나 근본적으로 로마군 자체가 형식화될정도로 축소되었기에 이들의 침략을 막지 못했고 결국 로마는 서부 전체를 상실하고 맙니다.그러나 동방에서는 아틸라가 침략도중 암살당해 결국 동방영토를 보전하는데는 성공합니다.

그러고 난뒤 로마 황제는 이게 다 기존 기독교 체계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기관의 사제가 담당하던 교황작위를 폐지하고 직접 교황임을 선포합니다.당연히 기관에서는 반발하여 불멸자를 뺴앗겠다는 협박을 했으나 불멸자에 의지해서는 안된다라는걸 알고 있던 로마황제에게는 전혀 안먹혔습니다.이때부터 동로마에서 기관의 영향력은 급속도록 약화됩니다.그렇게 되자 기관은 서쪽으로 가서 신들과 협상을 벌입니다.기관은 자신들의 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신들은 악마소환금지,북구신숭배,모든 마물 봉인을 조건으로 이를 허락합니다.이에 기관측은 모든 조건을 수락하면서 라그나로크도 끝나게 됩니다.그 뒤 북방의 신들은 로마에서 신도들을 모았으나 기독교의 영향력이 짙게 깔려있었던 터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이에 기관측은 북방의 신들을 기독교형식으로 숭배할 것을 제안했고 신들은 이를 수락합니다.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성인과 성상,성령입니다.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인물들과 성령들이 생겨납니다.

그 뒤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이때 내려온 야만족들은 자신들의 풍습에 맞게 제도를 만들고 사회를 구축해 나갑니다.이것이 바로 후대에 봉건제라고 불리는 것의 시초였습니다.봉건제가 확립되고 야만인들 사이에서는 로마제국의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이에 기관은 기독교 전파를 겸해서 야만인들중 제일 대빵을 찾아가 로마황제를 제안하고 이를 수락합니다.그러면서 만들어진게 바로 신성 로마제국입니다.신성로마제국이 건국되자 야만인들 사이에서는 기독교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빠르게 퍼졌고 전 서부지역이 기독교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무렵 동방에서는 서부에서 세를 불리던 기관에 대항하기 위해 성상파괴운동을 전개합니다.이는 북부의 신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었으나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명 또 개판이 날것이라 생각했던 로마인 사제들과 황제들은 이를 강행합니다.

동방 남쪽에서는 추방당했던 사제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무함마드라는 자를 만납니다.무함마드를 만난 사제들은 그의 신묘한 능력에 감탄하여 기관과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 제안하였고 마침 심심했던 무함마드는 이를 수락합니다.

1. 이집트의 초대 파라오를 보면 그에 대해서는 전갈모양의 기호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는 그가 진짜로 전갈,통칭 스콜피온 킹이었기 때문입니다.그가 파라오가 된 이유는 후에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든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엄청 거대하고 흉폭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공포감과 경외감을 느낀 이집트인들이 그를 숭배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footnote-ref-0)
2. 이는 후에 기관이 무역에 능통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footnote-ref-1)